

■ 인터뷰

‘쓰레기 재활용 모범’ 최순해 주부

“자원재활용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도를 과감히 실시해서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지를 북돋워줬으면 좋겠어요.”

리우환경회의 기간에 다채롭게 진행된 국내 환경캠페인에 적극 참가했던 주부 최순해(49·사진·서울기독교청년회 자원봉사자모임 회장)씨는 민간단체의 의욕과 시민들의 호응에 비해 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의 서울 지역위원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자원재활용 모범지역’으로 뽑힌 서울 목동아파트 11단지 어머니회장이기도 한 최씨는 4년 전부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뜻있는 이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비닐봉투 안받아오기와 물 아껴쓰기부터 시작한 생활환경운동은 지난해 3차례

신문·우유갑 알뜰 수거

울초 수익금모아 도서실마련

중고품 교환 알뜰시장을 통해 확산돼 11단지 1천6백세대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열고 있는 ‘재활용의 날’에는 헌 신문지 4천~6천kg, 우유갑 4백kg씩이 꼬박 꼬박 모아질 만큼 뿌리내렸고, 아직 수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수은건전지도 19개 동 입구마다 자체 제작한 수거함을 통해 빠짐없이 모아두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수익금으로 올초에는 관리사무소 2층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현재 7백여권의 책을 모았다.

“작가의 현장체험 소설인 <난지도>란 작품을 읽고 재활용의 가치를 깨달아 우유갑 수거를 시작한 경험도 있어서인지 주부들에게 환경 역사 교양 등 독서를 통한 자각을 권하고 싶어요.”

환경주간 행사의 하나였던 ‘자원재활용 여행’에 참가해 난지도와 무공해비누 제조업체를 견학하면서 ‘나만 잘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도 주부들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최씨는 정치지도자들에게 한마디 꼭 하고 싶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선거운동하듯 환경운동에 나서고 군축으로 환경예산을 늘린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김경애 기자〉